

경제포커스

■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향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ykm19@konkuk.ac.kr

I. 문제제기: 교육 경쟁력의 의미의 의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 가르친다. 생산성은 근로자 한사람이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과거와 같이 노동시간이라는 투입의 증가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21세기 경제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만이 미래의 경제적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다.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물적(physical), 인적(human) 자본이 풍부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중 인적자본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과 기술 등이 사람들에게 체화되면서 축적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지식기반 경제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경제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용어라고도 볼 수 있다.

인적자본은 개개인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생산성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각자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적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2005), 수학능력시험 실시 10년간 대학의 서열변화(2006) 등

자본이란 곧 한 개인의 생산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을 우리는 흔히 경쟁력(competitiveness)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기도 한다.

사실 요즘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쟁력이란 단어는 결국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경쟁’ 과 ‘경쟁력’ ,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에서의 ‘경쟁’ 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다소 돌아가더라도 경쟁과 경쟁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¹⁾.

우리는 자원의 배분이 시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장은 이기적인 개개인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곳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보다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들이려면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은 결국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시장 경제에서는 더 많이 벌려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리려는 소득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득경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용도에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높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각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인 이득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시장경쟁은 이처럼 개인의 이기심으로 하여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용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쟁이다.

물론 경쟁에서는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된다. 누군가가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일자리를 놓친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나라는 패배자를 제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셈이 된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가 승리한 까닭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나 보다는 그 사람이 내가 원했던 일을 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더 낫다는 말이 된다. 나 보다는 그 누군가가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바로 이러한 경쟁과 경쟁력이 우리가 원하는 경쟁력이다. 교육과 경쟁력을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일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이, 즉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1) 여기서 논의하는 시장경제에서 소득경쟁에 대해서는 한국선진화포럼 홈페이지의 “이승훈교수의 시장경제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http://www.kfprogress.org/>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극대화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나라의 교육경쟁력은 결과적으로 그 교육시스템에서 길러낸 인재들과 그 나라의 경쟁력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높은 교육 경쟁력이란 높은 생산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을 길러내는데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략적으로나마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평가해 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에 대해서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평가는 냉정한 것이어서 일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불만을 유학이나 교육이민과 같은 형태로 표출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정말 그렇게 낮은 것일까? 우선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1.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을 점수화 한 성적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비교 평가시험인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 and Science Study)나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과목 성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큰데 사실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줄고(2005)에서는 국제비교평가 중 하나인 TIMSS 수학시험에서 거둔 우리나라의 높은 성적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는 40개국 가까이 참여한 이 시험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적어도 평균성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중학교 수학교육의 경쟁력은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유대민족들이 모여 사

는 이스라엘도 평균성적은 우리나라에 비해 1 표준편차 이상 낮다²⁾.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성적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유일한 나라라는 점이다. <표 1>은 1995년 TIMSS 수학 평균 성적을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어서 제시한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싱가포르 일본 등은 사교육이 널리 행해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전반적인 성적이 우수한 나라이다. 그렇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함께 표에 제시된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 등의 나라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낮으며 그들의 성적이 크게 낮다. 이는 사교육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과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보정적(remedial)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에 반해 우리의 사교육은 다분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높은 성적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교육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인다.

<표 1> 과외여부에 따른 성적 차이 (TIMSS, 1995, 중학생 성적)

국가	과외하지 않는 학생			과외한 학생			
	학생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학생 수	백분율	평균점수	표준편차
한국	2973	569.32	106.48	2787	48.39	619.43	101.84
싱가포르	5445	620.53	94.58	2782	33.82	616.45	88.26
일본	3893	590.79	102.32	6296	61.79	583.58	98.40
미국	6961	491.52	91.21	3465	33.23	475.44	91.52
이스라엘	1017	536.86	88.63	287	22.01	494.29	89.89
덴마크	3677	491.08	82.17	257	6.53	423.13	70.36

자료: 졸고(2005)

그렇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사교육이라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그나마 국가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문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학 과목은 학생들의 인지능력(cognitive skill)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과목이며 미래의 생산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과목의 성적이 높다는 것은 미래의 과학자와 고급 기술 인력을 배출할 잠재력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적을 끌어올린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은 사교육을 포함한 한나라의 교육의 경쟁력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2) 여기서 제시된 TIMSS 시험점수는 세계평균이 500점, 표준편차는 100으로 표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러한 높은 수학 성적이 대학교육 이후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높은 수학성적을 갖춘 개인들이 자신의 인지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높은 인지능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는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하나마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초중등학교의 경쟁력을 평가해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높은 성적을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그 경쟁력은 공교육 시스템보다는 사교육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며, 둘째는 초중등학교의 경쟁력이 고등교육 이후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대해 논의할 차례이다.

2. 고등교육

대학 경쟁력 지표는 몇몇 기준에 의해 국가별로 조사도 되고 발표도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많이 인용되는 IMD 지표는 “대학교육이 경쟁사회 요구에 부응하는가?” 라는 1개의 설문문항(응답 척도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6. 아주 도움이 된다)을 가지고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대학교육의 현장성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상해 교통대학의 평가 기준은 노벨상과 필즈상을 수상한 동문 수 10% 및 교수진 수 20%, 생명과학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우수 연구자 수 20%,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수 20%, SCI 논문 수 20% 및 교수 1인당 위 5가지 기준 비율 10%이다. 교수 및 동문들의 연구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동료 평가 50%, 교수 1인당 논문인용도 등 연구 영향도 2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외국인 학생 비율 5%, 외국인 교수 비율 5%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수 연구역량과 교육의 질 외에도 국제화를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런 외국 기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수요자나 고등교육을 거

친 인재를 써야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사회의 수요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연구역량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의 대학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대학의 경쟁력이 낮아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쟁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실상 사회전반에 걸쳐 점증해온 경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 중 하나였다. 대학 간 경쟁이 없어도 대학에 오겠다는 학생으로 넘쳐났으며 대학의 주축인 교수 사회는 업적 평가 없이도 승진, 승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가장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직업집단으로 남아 있었다.

단지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은 인재를 배출 못했기 때문에, 또는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할 인적자원의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여전히 최전선(frontier)에 있는 지식의 상당부분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차례다.

II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

한마디로 경쟁력은 경쟁이라는 환경에서만 갖추어지는 것이며 경쟁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풍토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개인과 학교의 자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자율에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질 때 교육경쟁력 제고는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경쟁력 제고 방향을 생각해 보자.

1. 초중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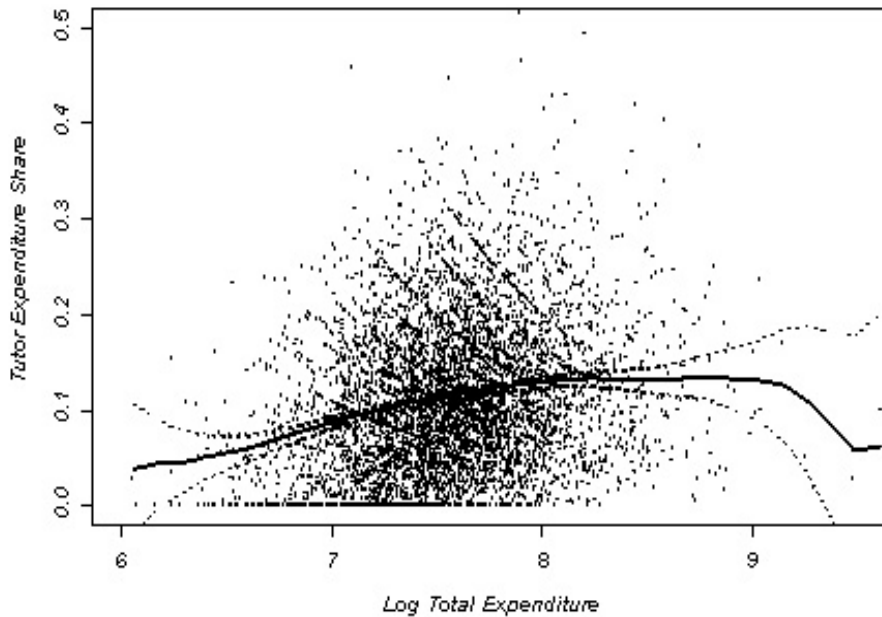
경쟁력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육은, 특히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은 결국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의의 본질은 공교육 시스템 내에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인데 아쉽

제도 그간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평준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져왔다³⁾. 그렇지만 평준화 논의도 다양성 확보 방안의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한편으로는 다양하면서도 획일적이다. 다양한 측면은 사교육비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근거로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총지출의 자연대수 값이며 세로축은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지출이 늘어날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며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도 일정소득수준까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사교육비 지출 비중의 넓은 분포이다. 사교육에 전혀 지출하지 않는 가구가 있는 반면 사교육비가 전체 지출의 30%를 넘는 가구도 적지 않으며 50%에 가까운 가구들도 있다. 이렇게 사교육에 대한 지불의사는 다양하다.

<그림 1> 가구총지출과 총지출 중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남기곤 (2006)

3) 또래 집단 중 유사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모아놓는 것은 특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경쟁을 자극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쟁이 성적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때 경쟁은 개개인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즉 사회에 대한 일정 역할이 요구되는 학생일수록 그들이 졸업 후 활동할 사회와 비슷한 집단을 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의 열등감과 좌절감이라는 비싼 대가도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경쟁을 자극하는 데서 오는 혜택(benefit)이 다수 학생들의 절망이라는 비용(cost)보다 높다는 명제는 적어도 선형적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넓게 분포한 사교육비 지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 입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획일적이다. 만약 더 나은 대학 입학이라는 학부모들의 목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획일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대학 입학에 있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⁴⁾.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흡수하는 방법으로서 학교 선택의 자유 확대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면서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 논점 중 하나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현장성에서만, 즉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얼마나 키워 낼 수 있는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단순히 학생들의 현실적응력을 키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성이나 실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학문탐구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고 하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물론 사회의 필요와 관계없는 구태의연한 내용을 가르치는 고등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눈앞의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지나친 현실안주는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적해두고 싶다.

현장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조심한다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수들의 역량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실 고등교육에서 연구와 교육은 분리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장 활발히 연구하는 교수만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현장성이 풍부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고등교육에서 교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도 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쟁의 부재가 낮은 경쟁력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답은 경쟁의 도입과 경쟁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줄고(2006)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업적 증가가 대학 인지도 상승, 혹은 입학생들의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수

4) 대학입학 방식의 다양화가 입시의 복잡함을 낳고 그 복잡함에 공교육보다 잘 적응하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 하리라는 예측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경쟁이 하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 즉 입시가 표준화된 하나의 시험에 따른 줄 세우기가 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수 유치에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대학의 경쟁은 학생 유치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학생선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입시 방식이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에서 거둔 성적을 중심으로 자신의 등수에 대한 정보를 가진 학생들을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학이 완전히 주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능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3불 정책과 같이 대학 당국의 자율을 제한하는 정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은 우수 학생과 우수 교수를 확보하려는 경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목표가 우수한 인적자원의 배출인 것과 같이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 역시 우수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IV. 교육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우리가 교육 경쟁력을 논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성적을 얻는 교육 경쟁력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개인의 경쟁력이 결코 국가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온 것 같다.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제반 조건 형성이야말로 교육 경쟁력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려면 경쟁을 제약하는 사회 관행의 많은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의 영역을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에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교육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 때로는 교육이 문제의 원천이 아니라 문제의 반영이라는 시각도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졸고(2006)에 따르면 최근 대학에서는 전공에 따른 성적 차이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전공의 서열화는 교대와 의대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와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보호에 따른 렌트(rent)를 누리는 직종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고득점자들을 이들 전공으로 이끄는

것은 적성이나 비교우위보다는 직업의 안정성과 높은 기대수입이다. 이러한 전공 쏠림은 우수한 인재들을 경제성장에 필요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분야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우려는 교육 제도 내의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궁극적 목적은 미래 세대들의 삶의 질이 교육경쟁력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쟁력 향상이라는 중간 표적에만 매달려 궁극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⁵⁾.

V. 맺는말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교육 경쟁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편으로 경쟁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 경쟁력보다는 제대로 된 인품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분명 옳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사람의 인품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릇된 시각이다. 경쟁력과 인품은 대체되는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경쟁의 세기에 경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경쟁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경쟁이 사회 전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회체제를 설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세이다.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은 보다 경쟁적인 환경 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은 경쟁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육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입 경쟁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막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국가 생산성 자체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더 현명한 대응방안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라는 한 시점으로 집결된 경쟁의 시점과 수학 능력이라는 한 지표로 집결된 경쟁의 차원을 더 넓히는 것이다.

5) 이를테면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은 점수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교우위를 스스로 발견할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서 시간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교육이 성적을 높이는 주입식 암기 교육보다는 더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 초중고등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는 분명 교육경쟁력에 대한 단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 문제를 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제 문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교육 외 부문의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편과 맞물려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영, 2005,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진영, 2006, “수학능력시험 실시 10년간 대학의 서열 변화,” 공공경제11(1).
- 남기곤, 2006, “사교육비 투자의 양극화 현상: 부유한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는가?,” 한국응용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